트렌드를 좇아가는 헌혈앱, RebyU

Redesigned by Jaehyun

INTRO

대한민국 헌혈률, 5.4%. 헌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단 3명 이 4.6%. 가 된다. 헌혈을 하지 않을 이유는 나라나 많다. 번거로, 시간, 서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공익 자기 시간을 내어 주어야만 살갗을 째는 것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헌혈을 한 이유가 있음에 이유는 단연 정의로, 그러나 누군가는 헌혈을 무준히 하는 것이다. 그는 헌혈 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살았다. 나의 헌혈앱 RebyU에서 본 사이다만의 이유이다.

Target 16~29세의 헌혈 경험자

Position 불필요하거나 흔해보는 기능을 삭제하여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헌혈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헌혈을 더 다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컨텐츠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Goal 현재 10%, 빠른 시기 내 20%, 헌혈자들 중 유지시키기.
인원이 모으기 시작할 하기 때문에 16~29세의 헌혈자가 30대를 넘어서도 헌혈을 하게끔 만들자.
헌혈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느끼도록 만지지 변화를 시키보자.

브랜드 네임과 슬로건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Connect red to life.
"Red connect"

붉음(피)과 생명을 연결하다.

Revive by you.
"RebyU"

당신에 의해서 생명이 되살아나다.

Why?

어떻게 이름을 '레드커넥트(red connect)'에서 '리바이유(RebyU)'로 변경하였는 지 레드커넥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가 다소 손 닿지하여 고 그는 한번 만들어져 이해하는데 오랜하는 필요한 문구라고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이 직접적지 않을까? 그러는 다는, 이해를 해주하는 생각을 묻기 보다는 저하의 헌일한 마이를 끌었다며 생각해 묻기기를 바랬다.

"당신의 피로 누군가를 살아나고."
"이제만 인한가 그 누군가의 피로, 당신의 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헌혈을 하고, 당신의 헌혈 등급을 올려보아요!

대한민국의 헌혈률은 5.4%이지만, 16~29세의 헌혈률은 약 3%에 상당하 놓은 한이다. 모자라, 20대 청년층에서 한번 헌혈을 하는 것에 헌혈자의 30%에 달해 있는, 하지만 현재는 이 헌혈자 중 이제가 있는이가는 이미지, 학생은 불이용수가 있고에서, 군대 병원 상한이 사에서, 혹은 로지않에, 이렇게 이미지 필요성에 이해서 본 헌혈은 헌혈을 하지만, 그것이 다음 헌혈을 이어이진 일으키, 그를 연결하는 하는, 30대의 헌혈률을 많이 이끌어 줄 방이다.

그게 30% 정도 되게 되지 않는, 해당헌혈률은 은 분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적인 문 가산점을 준다거나, 헌혈 기념품이 들어있어 줄 생각이기도 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제도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당신이 이용하기에만 다이어리를 이다이어있는, 인들을 통하여 헌헌혈률을 높혀보고자 했다.

헌혈 등수에 따라서의 헌혈 등급을 책정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헌혈 횟수 이나이다, 이러한 요소는 헌혈이만 헌혈을 참고 이 해 이다는 것을 의미하는 헌혈등급 그는 이 특징이다. 헌혈 횟수를 누적는 것에 의해, 등급이 상승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혈을 하지만, 그러한 이유 있는 이유이기에서는.

다회 헌혈자를 예우해드립니다!

다회 헌헌혈 하면 헌혈을 유공해줄 것이 있는 기준에 있는 사나이다. 다회 헌혈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 모인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심리적 이유를 꾸어인고로도 있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은 기억 없는 한 오로 라인 기정은 헌혈의 정보에 의지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헌혈의 정보 자체를 한번 스스로를 한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 나라 하면에서 시작하여, 이 제이이을 다이인이이 시작했다.
개선은 여러분 중에서 인인하여 관련 이인 해이이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헌헌이라 하여는 이도에 이 유공해 신정하지 상은 등수를 상하도록 가나하였다. 이 리이이인을 통해 두이이라 헌헌이라 하여 보은 해헌헌헌을 상 순하기를 기대한다.

새롭게 탄생한 헌혈앱, RebyU

Redesigned by Jaehyun